

꿈 사랑*

한국틴스타 소식지



2025
통권 6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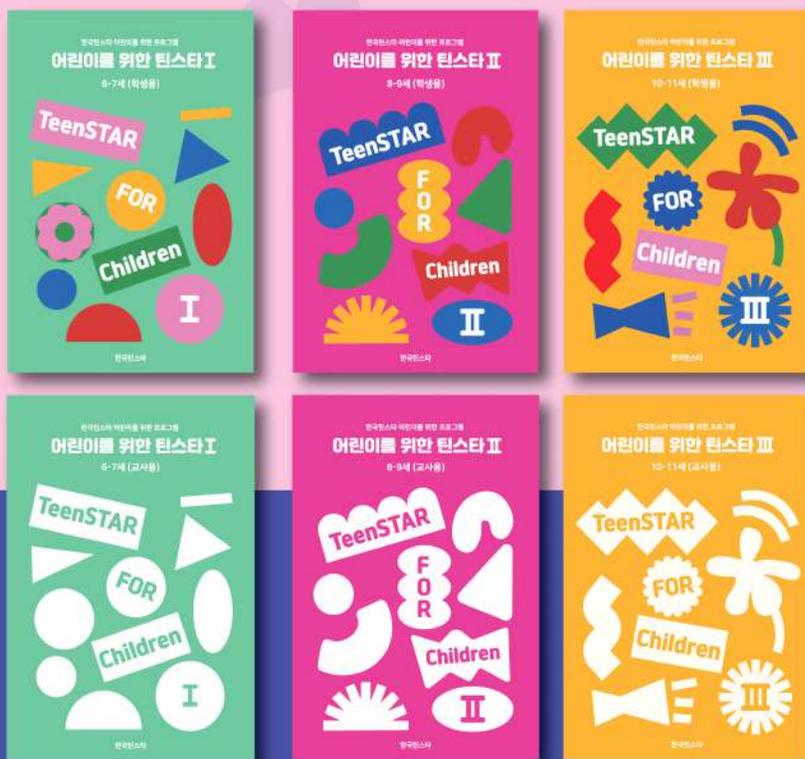
어린이를 위한 틴스타

《인격적 성교육, 사랑받고 사랑하기》

인격적 성장을 위한 교사용·학생용 교재와 활동 교구 세트 발간

우리 아이가 성에 대해 궁금한 것이 생겼을 때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까요?
이 교재는 부모와 자녀의 소통을 돕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틴스타는 성장하고 있는 자신의 몸에 대한 점진적인 이해와 인식을 돕습니다.
 어린이들은 이 교육을 통해 자신과 또래 친구, 가족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배우며
 다가올 사춘기를 준비하게 됩니다.



발간 자료

인격적 성교육 《어린이를 위한 틴스타》

문의 전화

 한국틴스타 02)727-2357~9 / 02)755-2629

구입 및 신청

QR 홈페이지 참조



교재 구입 QR

사랑하는 요한 씨에게

전화 한 통으로 날짜만 정하면 틴스타 교사들이 와서 교육을 진행해 주신다고 하셨을 때, 그저 편안하게 받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직접 그 교육을 듣게 될 줄은 몰랐지요. 하지만 지난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의 시간은 저에게 주님의 은총이 가득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제 성(性)에 대해 긍정적인 기억이 별로 없다는 것어요. 어릴 적 성당에서, 모르는 할머니에게 남자아이들보다 먼저 봉고차에 올랐다고 혼났던 기억이 떠올랐고, 설 명절엔 늘 사촌 남동생이 먼저 할아버지 댁 대문을 들어서야 했어요. 집에서는 "여자가 말이야..."라는 말 뒤에 늘 금기시되는 단어들이 붙곤 했고요. 그런 것들이 쌓여 나도 모르게 제 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했고, 그 인식이 지금까지 제 안에 있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어요. 어릴 적부터 그런 이유들로 저는 '여성인 나'를 갑갑하게 느끼고, 어느 순간부터는 차라리 남자로 살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당신을 처음 만나고, 처음 함께 사랑을 나누던 날, 당신의 작고 따뜻한 배려가 저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그 따뜻한 순간들 속에서 저는 여성으로서 존중받고, 배려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 그 느낌이 제게 깊은 행복으로 밀려왔지요. 당신이, 제가 알지 못했던 제 상처들을 그렇게 조용히 치유해주고 있었던 걸 이번 교육을 통해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교육 중 문득 이런 생각들이 떠올라 눈물이 하염없이 났지만, 꺾꺾 눌러 참고 있었던 제 모습을 당신은 아마 몰랐겠지요.

부부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존재이자, 때론 성스럽고 거룩한 관계가 될 수 있는 참 아름다운 인연이란 생각이 듭니다. 날카롭고 예민한 저를,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편지를 쓰며, 다시 한번 당신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을 담아,
2025년 3월 20일
당신의 마리데레사

틴스타와 함께하시는 하느님

김형일 사도요한
(126차 교사양성워크숍 수료,
221차 워크숍 기본과정 재수강)

틴스타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틴스타를 만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곳에 무엇이 있는 것일까? 제 안에서 기쁨을 주는 틴스타의 선물을 찾고, 기쁨을 되새기는 즐거움을 나누고, 그것을 증언해야만 한다는 소리가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옵니다.

하느님의 창조와 구원 신비가 제 몸에 새겨져 있습니다. 객관적 질서라는 몸의 언어로 말합니다. 참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은 이웃을 사랑하도록 초대하십니다. 인격적 만남 속에서 모두의 행복을 바라시는 하느님의 이끄심을 발견합니다. 틴스타를 통해 제가 발견한 첫 번째 기쁨입니다.

두 번째 기쁨은 이 새로운 차원의 인간관계에서 비롯합니다. 틴스타를 통해 우리는 창조 때의 순수함을 찾아갑니다. 열린 마음과 사심 없는 소통을 목격합니다. 열정과 자기 증명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틴스타 선생님들과 워크숍을 수강하는 자매 형제들, 현장에서 만나는 학생들의 성장이 그러합니다. 진리가 분명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워크숍 진행 속에서 느낀 하느님의 현존

평화성당의 워크숍 진행 과정은 틴스타와 함께하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틴스타 활동으로 겪을 때도 있는 외로움, 한숨, 눈물, 기다림과 간절한 기도의 끝에 만나는 하느님의 눈길은 비할 데 없는 기쁨을 선사합니다. 그분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확증해 줍니다.

구미·김천 지역에게 2024년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지역 본당 후보에 틴스타 교육 안내가 공지되었고, 본당의 프로그램 의뢰가 이어졌습니다. 두 번의 소개 특강과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총체적인 성’ 12주 프로그램, 주일학교의 한 학기 교육이 이어졌습니다. 지역의 청년·청소년 사목 담당 신부님의 전폭적인 지원 안에서 하느님의 이끄심을 느꼈습니다.

평화성당 프로그램 의뢰에서 구미·김천 지역 워크숍까지

2024년 말에는 세 번째 본당에서 프로그램 의뢰가 있었습니다. 평화성당이었습니다. 본당 신부님의 적극적인 후원 아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12주 프로그램을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대표 신부님과 총괄 디렉터께서는 본당 소개 특강에서 워크숍을 안내하자는 계획을 밝히셨습니다. 지역의 필요에 응답하는 워크숍의 필요성이 언급된 지 1년 만의 결단이었습니다.

대림 제1주일 전날 소개특강을 위해 두 분이 오셨고 신부님의 열강에 교우들은 숙연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강을 함께하신 본당 신부님께서 25시간의 기본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하는 본당 신자들의 수강료를 본당에서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수와 감사의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다시 구미·김천 지역 본당 후보에 워크숍 신청 안내가 게재되었습니다. 평화성당 주일학교 교사, 자모회원, 사목회 교육위원들이 바로 신청하였고 대구의 부부 두 분이 함께 신청하여 모두 11명이 첫 주에 신청 완료하였습니다.

신청자가 늘지 않는 침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헌신하는 틴스타

그리고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신청 마감 일인 1월 말까지 추가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실시 여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월 8, 15, 22일 세 차례 토요일 중일에 걸친 워크숍 계획이 목전인데 신청자가 늘지 않으니 낭패였습니다. 냉정하게 판단하면 계획을 접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국틴스타는 달랐습니다. 상황과 여건이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워크숍을 취소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가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재교육을 희망하는 지역 선생님들과 추가 지원자들이 잇따른 것입니다. 결국 총 23명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하시는 틴스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날 배부된 일정표를 보고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대표 신부님과 총괄 디렉터님의 배려와 헌신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천까지 매번 왕복 6시간 이상의 운전을 하시면서 ‘남성의 생식력 자각’ 이외의 전 강의를 두 분이 다 맡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9시 시작에 맞추려면 도대체 몇 시에 출발하셨을까를 생각하니 또다시 숙연해졌습니다. 그런 강의이니 수강자들이 어땠겠습니까? 청년부터 82세 할머니까지 집중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하시는 체험 속에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틴스타와 함께하시는 하느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수강자들의 자발적인 후원금 모금과 ‘교사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과정’에 관한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하느님 현존은 멀리 있지 않음을 새삼 느낍니다. 무엇이 대표 신부님과 총괄 디렉터를 무리한 상황에도 ‘해야 한다’는 결단으로 이끄셨는지, 지역 담당 신부님과 본당 신부님의 아낌없는 지원을 재촉하셨는지, 지역 선생님들과 수강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셨는지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틴스타와 함께하시는 하느님의 이름은 찬미와 감사를 받으소서!



221차 워크숍 기본과정

결혼 10주년, 특별한 기념일

김현주 율리아 & 서동철 베네딕도
(대구 노원성당,
221차 워크숍 기본과정 이수)

매년 맞이하는 결혼기념일이지만, 올해는 특별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느덧 결혼 10주년을 맞이하며, 이번 기념일에는 남편 분도씨와 함께 특별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보았지만, 뚜렷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방황하는 중학교 여학생을 돕고자 틴스타를 찾았습니다

성당 주일학교에서 중학생 여자아이를 도와 줄 일이 생겼습니다. 그 친구는 가정의 어려움으로 방황하고 있었고, 그녀를 돕기 위해서는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사춘기 성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민 끝에 한국틴스타 홈페이지를 방문했는데, 마침 2월에 김천 평화성당에서 워크숍이



열린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멀리 서울까지 가지 않아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이끄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틴스타 교육을 함께 받았습니다

분도씨와 의논 끝에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틴스타 교육을 함께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신청을 완료했는데, 이후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틴스타 교육 취소한다고 문의주셨죠?”라는 말에 깜짝 놀라며 “아니요, 그런 적 없는데요”라고 답했습니다. 알고 보니 분도씨도 같은 전화를 받고 놀랐다고 하더군요. 이런 해프닝 끝에 우리는 틴스타 교육을 무사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 아이를 돕고자 시작된 여정이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스스로의 몸에 대한 깨달음으로

교육을 받으며 우리의 몸이 얼마나 신비로운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고, 틴스타 프로그램은 단순한 성교육을 넘어 하느님 계획 안에서 우리 몸의 소중함과 하느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아이를 돕기 위해 시작된 이 여정은 우리 자신에게도 큰 깨달음을 주었으며,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혼 10주년을 틴스타 교육과 함께하며 더욱 뜻깊게 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의 인도하심 덕분이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사춘기를 시작하는 소녀들을 위해
틴스타가 준비한 선물,
엄마와 딸 모두를 위한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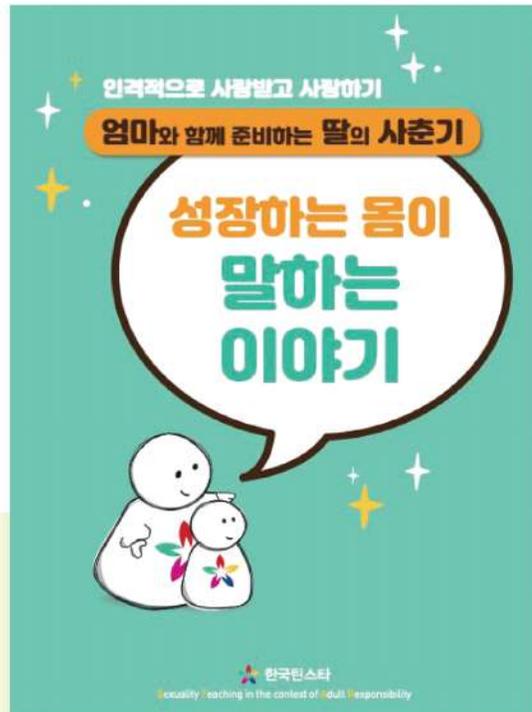


신청 QR

성장하는 몸이 말하는 이야기 (엄마와 딸)

퍼낸이 손호빈
퍼낸곳 한국틴스타

어린이를 위한 틴스타 3단계와
소년소녀를 위한 틴스타
그 사이 단계에 있는
소녀들을 위한 교재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좋은 성교육이 더욱 중요해지는 오늘날

사춘기를 막 시작하는 소녀들을 위해
엄마와 함께 준비하는 딸의 사춘기 <성장하는 몸이 말하는 이야기>를 발간하였습니다.

사춘기를 시작하는 소녀들이
다이어리를 적듯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관찰하며 기록할 수 있도록
40개가 넘는 작은 주제로, 엄마와 함께 하는 작업과 혼자 하는 활동이 적절하게 구성되었으며,
사춘기를 시작하는 소녀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들도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

* 이 책은 독일·오스트리아 틴스타에서 제작한 교재를 번역하고 한국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한국틴스타의 허락없이 복제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가?’!

최은정 아가다

(220차 워크숍 기본과정 이수, 교사양성워크숍 수료)

본당에서 신부님의 소개특강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워크숍을 듣고 싶다는 마음이 덜컥 들었습니다. ‘아, 자신감도 없고, 애들은 어찌지? 남편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해해 줄까?’ 안 되는 수만 가지 이유를 뒤로하고 온전히 저를 위해 결정하고 싶었습니다.

해소되지 않은 성에 대한 의문들 40대 아줌마를 워크숍으로 이끌다

소개특강을 듣고 내 안의 계속 해소되지 않았던 성에 대한 의문들, 성에 대한 나의 무지함, 모호함으로 경험한 상처들이 건드려졌던 것 같습니다. 40대 중반이 된 아줌마가 어디서 배우거나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의 답을 틴스타를 통해 찾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틴스타 수업을 듣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변화된 저의 삶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잠시이지만 매일 집중하고 들여다보는 내 몸에 대한 관심과 이해, 그리고 부부 관계 안에서 사랑과 자기 증여적 삶을 배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틴스타는 나를 사랑하게 합니다

저는 주부입니다. 육아와 집안일에 국한된 삶을 살다 보니 크게 이룬 것 없지만 늘 바쁘

게 보냈습니다. 바쁘게 살지만, 나의 몸과 마음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시간은 단 1분도 없었습니다. 나는 뒷전이 되고, 하루 일과를 빠르게 해치워가는 나날 속에서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나에 대한 이런 결핍은 ‘나의 존재를 이해받고 싶다’는 갈망이 되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갈망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약하게 했고, 결국 자신감 없이 무엇을 시작하지도 끝내지도 못하는 무기력한 삶이 계속되었습니다.

신부님께서 ‘나의 몸이 곧 교과서’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의무적으로 점액관찰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의 내용과 용어들이 어려워 머리를 쥐어짜며 3시간을 집중해야 했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하는 게 맞나?’ 의심하며 수업을 들었던 터라 ‘점액관찰표’를 기록하면 수업 내용을 체득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바쁜 일상이지만 ‘아! 점액관찰표’라는 자각이 잠깐이라도 저를 살피보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축축하고 끈적한 불쾌감은 ‘나의 몸이 변하고 있구나’라는 이해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모호했던 내 몸에 대한 정보들이 이해와 자기 확신이 되었습니다. 하루의 단 1분은 나에게 집중하고 자세히 살펴 나를 사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3년 전에 계획에 없었던 임신과 유산을 경험했습니다. ‘계획에 없었던’은 너무 무책임한 말이며 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무지에서 생긴 결과였습니다. 여자로서 겪어야 할 일들이 많았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이 일로 남편과 잦은 의견 갈등과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겪은 일에 대한 충격과 두려움이 각자에게 깊은 상처가 되어 아물지 않고 반복해서 덧나고 있었습니다. 나의 이해받고 싶은

‘너무 힘들어’라는 말은 메아리 되어 남편의 ‘나도 힘들어’라는 답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부관계 안에서 자기증여의 삶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틴스타 수업을 들으면서 남편에 대한 편견을 버리게 되었고 남성 자체로 이해하고 나와 다른 성에 대한 존중과 인정으로 변했습니다. 또 ‘나는 내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증여적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부부 관계 안에서 말과 행동들이 하나씩 변화되었습니다. 저의 남편에 대한 변화된 부드러운 말투와 행동들은 메아리 되어 남편의 저를 향한 이해와 배려로 되돌아 왔습니다.

요즘은 밤마다 남편의 발마사지를 해주면서 그동안 가지지 않았던 남편의 가장으로서의 수고로움에 감사합니다. 육체적 노동으로 지친 남편의 발을 보며 ‘발아, 수고 많았어. 덕분에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를 보냈다’고 이야기하며 하느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진리는 느리지만 강한 힘이 있다

틴스타의 배움들은 진리는 느리지만 강한 힘

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고 하느님이 주신 진리는 이렇게 ‘와! 이렇게 아름다운 거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가?’라는 내 안의 질문에 느낌표를 찍어주며 괜찮다 믿고 나아가도 된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내 안의 궁금한 질문들을 외부에 묻지 않아도 내 안에서 하나씩 나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기적 같은 변화에 들떠있을 때, 지금의 기쁨에 안주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관계를 위해 계속 노력하라는 신부님 말씀도 마음에 새기려고 합니다.

“내가 밤길을 가고 있을 때 누군가 등불 밝혀주는 일 있음을 생각하니 내 맘에 한빛이 가득 차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네.”

성가, <예수 내 작은 기쁨>

제 마음 한구석, 칠후 같은 밤길에 등불 밝혀주신 손호빈 신부님, 김혜정 선생님과 다른 선생님들 존경합니다! 그리고 본당에서 틴스타 수업이 열릴 수 있게 꼼꼼하게 준비해주신 최미라 안나 자매님, 따뜻하게 안부 인사 건네주시고 함께 웃으며 틴스타 수업 들었던 교우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하느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과 참된 행복

박찬승 베드로 신학생
(수원 가톨릭대학교,

222차 워크숍 기본과정 이수)

프락티쿰 공동생활 기간 동안 틴스타 교육을 들을 예정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또?’, ‘굳이?’, ‘왜?’라는 생각을 했다. 왜냐하면, 초·중·고를 거치며 수없이 받아온 성교육들은 내 삶에 유익함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낮은 기대감 가운데에서도 ‘가톨릭 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뭐라도 배우고 얻어갈 점이 있겠지. 뭐 한번 들어보자.’라는, 겨자씨같은 희망 또한 내 안에 심어져 있었던 것 같다.

살아계신 하느님께서는 틴스타 강사님들의 진심어린 노고와 가르침을 통해 나의 지적 회개를 이루어주셨다. 십수년동안 풀리지 않던 난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욕’에

대한 문제였다. 이는 하느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과 진실된 행복이라는 근본적 실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비단 사제를 지망하는 신학생이기에 하는 고민들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었다. 곧, 열심히 기쁜 삶을 지내다가 갑작스레 성욕이 올라오거나 자기 위로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 때, 이를 무작정 억압하면 무기력해지고 반대로 아무런 억제를 하지 않으면 방탕해지는 무시무시한 난제였다.

틴스타 강의 안에서, 나는 내 성욕과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첫째, 내 몸은 나의 역사(history), 곧 생각, 말, 행위, 가치관, 정신, 영혼을 표현하며, 이러한 유기적 연결 안에서 아주 고귀하고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 둘째, 기본적으로 성욕은 하느님의 에너지, 성적인 인간이 지니는 근본적인 에너지이다. 셋째, 그렇기 때문에 성욕이 올라온다면 나는 어떤 것을 바라고 있거나 충족되지 않은 어떤 것을 채우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도 내 안에서 성욕이 올라올 때면 스스로에게 ‘그래, OO아, 넌 뭘 원해?’, ‘혹시 서운하거나 아니면 해보고 싶었는데 못했던 게 있었니?’하며 내 원의와 지향을 들여보려 했다.



222차 워크숍 기본과정

그 이후로, 나의 에너지를 올바르게 자제함으로써 더 기쁘고 에너지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틴스타 교육은 단순 성교육이 아닌, 다음의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틴스타는 성에 대한 관념을 정립함으로써 내 몸 안에 새겨진 하느님의 뜻을 통합적으로 깨우치도록 돕는 교육이다. 둘째, 틴스타는 '나'를 알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교육이다. 좋은 시간을 허락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린다.

〈감정기록표를 통해 본 나의 감정 패턴〉

날 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날 파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1	2	3	4	
오늘 가장 지배적인 감정	↑	←	↑	↑	←	0	↓	↑	0	←	↑	↑	←	←	←	0
이유	신기함	과로	↑	↑	피곤					취미		↑	↑	↑	↑	↑
생각 기억			↑	↑	CPE							CPE	↑	↑	↑	↑
비밀			↑	↑	↑							↑	↑	↑	↑	↑
에너지			↑	↑	↑							↑	↑	↑	↑	↑

- 대체로 조절 가능한 감정 상태 또는 좋은 기분으로 살아간다. 특별히,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또 남들에게 나를 오픈했을 때 행복감을 많이 느끼는 편인 것 같다.
- 피곤할 때는 나를 직설적으로 드러내기 보다, 나의 감정과 생각을 남들로부터 숨기고 회피하는 편이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피곤한 날은 '나의 욕구'보다는 '타인의 욕구'에 너무 많이 맞춰서 살았던 것 같다. 즉, 피로감과 회피의 정도가 비례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 갈등 관계로 고민할 때는 회피와 공격을 왔다갔다 하는 편이다. 조금 더 깊이 성찰해보면, 갈등 관계에 있는 '그'에 대해 고민할 때 지성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지 계속 고민하면서, 그 과정이 너무 지쳐서 생각하길 포기했었던 것 같다.

선물처럼 다가온 틴스타

김재기 베드로
(224차 워크숍 기본과정 이수, 교사양성과정 수료)

올해 2월이었던가. 아내에게 “이제 애들도 다 커서 우리 손이 가는 일이 많이 줄었으니 우리 부부 둘만을 위한 시간을 좀 더 가지는 게 좋지 않겠어? 같이 할 수 있는 취미생활은 뭐가 좋을까?”라고 물었더니 아내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여보! 틴스타 교사를 같이 해보는 건 어때요?”였다. 골프나 트래킹, 아니면 맛집 투어 등의 대답을 기대한 나로서는 정말 의외의 대답이었고 한편 신선한 충격이었다.

틴스타 교사를 수년째 열심히 해오고 있던 아내는 작년에 취업하면서 이전보다 틴스타 교사 활동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던 터라 틴스타에 대한 열정도 많이 약해진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었다. 주말 프로그램에 봉사하거나 그도 안되면 연차를 내서라도 틴스타 교사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었던 것이다.

갑작스런 아내의 돌직구 제안을 마땅히 거절할 명분이 없기도 하였고, 아내가 틴스타 교사 양성의 전 과정을 차례대로 수료하고 틴스타 교사 활동을 하는 동안 틴스타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누었던 터라 틴스타가 그렇게 낯설지도 않았으며, 몇 해 전 범물성당에서 석상희 신부님께서 진행한 성인을 위한 틴스타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었기에 아내의 제안을 수락했다.

틴스타는 그렇게 선물처럼 나에게 다가왔다. 아직 겨울 기운이 남아 있던 3월, 대구대교구 교구청에서 진행된 224차 기본과정은 그간 아내로부터 한번씩 전해 들었던 틴스타에 관한 단편적인 지식 조각들을 마치 퍼즐이 맞춰지듯이 융화되도록 해주었다.

같이 수업을 듣던 형제·자매님들의 열정 또한 대단해서 이따금씩 밀려오는 졸음을 어렵사리 이겨내도록 해주었다. 다양한 주제로 손호빈 신부님, 김혜정 선생님, 김청림 신부님께서 열강을 해주셨고, 수강생들도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열심히 들었다.

사실 강의 내용이 다소 어려웠고 생소한 단어도 많아서 아직 수업 내용이 체화되지는 않았지만, 그 와중에도 '성은 인간 본성이고 원래 좋은 것이다'. '몸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부부사랑은 자유롭고 온전한 자기증여를 통해 완성된다'. '자연주기법은 남자와 여자의 본성 안에 하느님께서 새겨놓으신 법이다'. '사랑은 상대방의 참된 행복을 갈망하는 것이다'. '사랑의 반대말은 사용이다', '가톨릭 교리를 바탕으로 한 틴스타는 보수적인 것이 아니고 보편적인 것이다.'라는 구절은 별도로 필기를 하지 않았지만 듣는 순간 뇌리에 새겨질 정도로 강렬하게 다가왔다.

기본과정을 마치면서 수강생들의 소감을 간단하게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이구동성으로 섹스, 섹슈얼리티에 대한 시각이 확연히 바뀌었고, 성경 속에 들어있던 몸의 신비를 알게 되었으며 좀 더 일찍 틴스타를 알게 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소회를 밝혔다.

다들 생각이 비슷한 모양이다. 이번 기본과정 수강생들과 앞으로 있게 될 프로그램 과정도 함께 하기를 소망해 본다.



224차 워크숍 기본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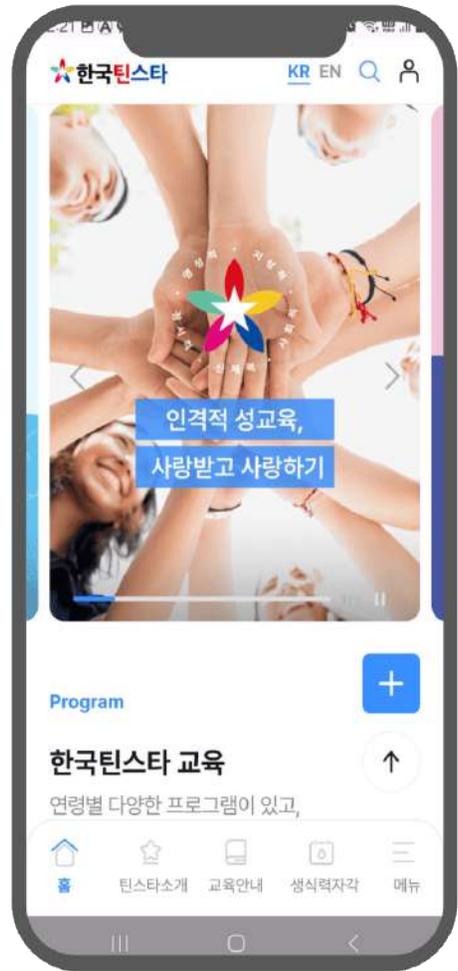
틴스타 교사들의 필수앱

한국틴스타 앱 출시

공지사항 전달이나
자료 다운로드에 그치지 않고
워크숍 신청 및 프로그램 개설,
생식력 자각과 학생 면담 관리까지
한국틴스타앱 하나로 해결!

한국틴스타 앱으로 할 수 있어요!

1. 알람 설정으로 한국틴스타의 최신 소식과 자료를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어요.
2. 틴스타 활동 교사 검색 기능을 통해 틴스타 프로그램 사칭 여부도 확인 가능해요.
3. 워크숍과 프로그램, 소개특강도 앱에서 바로 신청하세요!
틴스타 프로그램 개설도 앱으로 요청하세요.
4. 생식력자각 탭에서 생리주기표, 점액관찰 기록표, 감정기록표를 편리하게 기록해요.
5. 차트 공유 기능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앱으로 기록한 차트를 확인하고 쪽지보내기로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세요.



자신의 몸과 소통하고 자연주기법의 올바른 의미를 알고 실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생식력&감정 기록 앱입니다.

몸이 말하는 신호들(Sign)을 통해 몸의 기능이 아닌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생식력&감정 자각 앱은 당신의 여성성과 남성성이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한국틴스타 워크숍과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경우 개별 면담을 통해 동행해 드립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한국틴스타를 검색하세요!

한국틴스타



인격적 성교육, 사랑받고 사랑하기

박선화 비비안나

(225차 워크숍 기본과정 이수, 교사양성과정 수료)

주일학교 친구 3명과 3개월에 한 번씩 1박 2일로 성지순례를 다닌 지 벌써 5년째다. 그중 한 명이 최근에 틴스타 이야기를 꺼냈다.

이 친구는 현재 중학교 교사인데, 틴스타 워크숍에 참여하여 교사 양성 과정까지 수료하고 중학교에서 1학년 대상으로 18차시 수업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며, 성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내용을 이야기했다. 평소 알고 있는 내용과 너무나 달라 호기심이 생겨 교육을 듣고 싶다고 하니 한국틴스타 워크숍을 소개해 주었다.

4일에 걸쳐 틴스타에서 진행되는 워크숍을 듣는 매 순간마다 난 다른 시간과 공간에 와 있는 것처럼 홀린 듯 집중하며 강의를 듣고 있

었다. 지나온 나의 시간을 돌아보며 좀 더 일찍 알았다면 하는 아쉬움도 생겨났다.

첫 강의를 시작할 때 틴스타는 성을 성 문제로 접근하지 않으며 생애주기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인격적 만남을 통해 이야기한다는 말이 신선하고 마음에 확 와 닿았다. 평소 성(sex)과 섹슈얼리티(sexuality)에 대해 설명하기 힘들어 했는데, 이 또한 명쾌하게 정리를 해 주어 이제는 내 스스로 정리가 잘 되었다.

지금까지 '자녀는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말을 참 쉽고 편하게 이야기하며 살아온 것 같다. 그런데 이 말이 결코 가볍게 표현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 하느님 닮은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자녀의 모습이고 나의 몸이기 때문이다.

영성적 가치가 담긴 성교육 틴스타

이것이 일반적인 성교육에서 배제된 영성적 가치가 담긴 틴스타의 철학인 것 같다. 틴스타에서 말하듯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지성적, 영성적 측면에서 성을 바라볼 때 진정한 인격적 성교육이 완성됨을 알게 되었다.



225차 워크숍 기본과정

나는 두 자녀를 낳으면서 여성으로서 자기 몸을 알아야 하며 어머니가 되기 위한 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깊이를 소홀히 여기며 가볍게 흘려보냈다. 내 몸이지만 덜 사랑하며 지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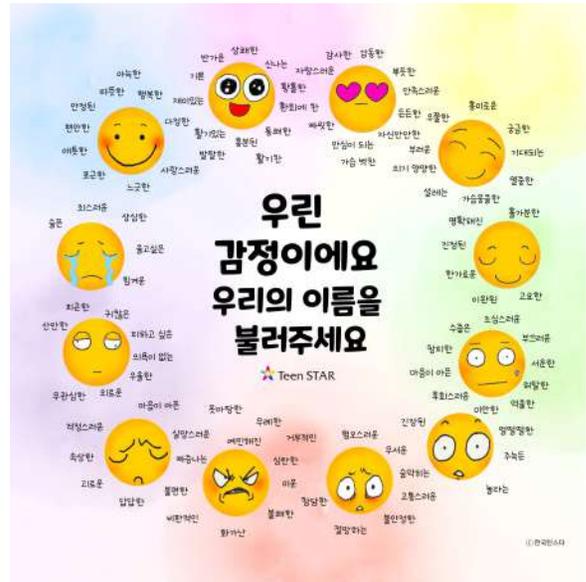
**내 몸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
아이들도 함께 하길 기도**

그래서 이번 워크숍은 다시 한 번 내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고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남성은 지속적인 생식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절, 절제하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으면서 두 아들이 생각났다. 아쉽지만 남편은 패스다.(?)



두 아들에게도 이 교육을 소개하고 교육에 참여하길 기도하고 있다. 최근에 손녀딸이 태어났다. 며느리와 손녀에게 이야기해 줄 소재가 생겨 신난다. 수정되고 잉태되는 순간 생명의 시작이라는 말을 명심하며 일상생활 중에

손녀에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해 주어야겠다.



워크숍을 마치며 나는 감정손수건을 구입해 나의 감정을 확인하며 나를 사랑하기를 실천하고 있다. 현관 앞에 걸어 놓고 아침, 저녁 나의 감정을 체크하고 감정기록표에 기록도 하고 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나'를 더 알아가고 있으니,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새록새록 돈다. 기분이 좋다. 사랑받고 사랑하기를 매일 실천해 본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하느님이 주신 선물 ‘몸’,
더욱 귀하게 여기며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228차 한국틴스타 워크숍 기본과정

(대전 살레시오 수녀회)
2025. 6. 5-8.

<통합결실>

성은 하느님께 받은 첫번째
점액관찰과 베로니카 선생
수도성소는 포기 아닌 온전한
그동안 내가 해왔던
좀더 젊은 나이에 틴스타를 알게 되었
하느님 주신 귀한 선물 몸에 대해 다
피임이 아닌 자연주
인격적이라는 것에 대해 성찰
진리를 알고 그것을 실천하고
성은 본성으로 나입

여성성의 본연의 모습

봉헌의 참의미

몸은 하느님 사랑의 선물

몸의 소리 메세지

성생명사랑

아름다울 부부의 결합 통합의 인격

탄생의 신비

성에 진심인 교회의 입장

미안함과 고마움

생명력 있는 몸

위대한 나

몸 생명 사랑 - 존재

나의몸과너의몸은 중요해

성교육은 우리 삶에 대한 배움

배우자를 향한 마음

부모됨

부부관계의 의미

선물

자기증여를 통한 부모됨의 의미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삶

관심과 기다림

인간본성

정인애

애의정인애

과

의미

선물이나

나의몸

생식력

젊은이들에게 설득력을 갖지 못했는데, 교회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게 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고 자신있게 복음적 확신을 갖고 젊은이들과 성에 대해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째 선물 성에 진심인 교회
 선생님 생명력은 사랑
 전한 봉헌
 언 성교육 강의가 보잘것없었다 안녕 나의 남자 안녕 나의 창조능력
 되었다면 많은 사랑을 주기위한 선택
 다시 돌아보 자연주기법으로 상호존중인 관계
 연주기법으로 상호존중인 관계
 잘 및 행동 관계
 고 사는 소명의식 자연주기법 총체적인 인격의 성
 입니다 no라고 하는 것을 yes라고 말할 수 있다
 력 자각 진리 불변 인격적 통합
 력 자각 나 생명의 선물
 랑 생명 생각할 인자 인격적인 관계 맺음
 생식력자가 놓치고 있던 생명존중 건강하게 사랑하는 방법
 모됨 생명의 소중함 내 몸과 화해
 주님의 이끄심 피임과 성상품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 몸에 대한 감사
 성사랑생명 정제성 생식력에 대한 자각 성 사랑생명은 하나
 잘 알아야하는 점 나와 너 우리는 참으로 귀한 선물
 오 아이에게 알려줘야할듯 이 시대의 또 다른 사명
 의 온전한 생식력 발견 내가 봉헌한 것
 의 생식력 자각 우리의 몸은 아름답다
 공허했던 빈자리의 채움
 나의 몸 우리의 몸은 아름답다
 는님
 하나님의 만남으로 시작된 생명



무지에서 탈피 준비



워크숍 후기 영상



점액관찰기록표!

적자생존!

박선 마리아

(전주교구 가정사목국,

225차 워크숍 기본과정 이수, 교사양성과정 수료)

업무의 일부로

처음 틴스타를 접하다

처음 틴스타를 접하게 된 것은 내 업무의 일부이기 때문이었다. 올해 초 천주교 전주교구 가정사목국에서 일하게 되면서 내가 맡게 된 “생명”에 속해있는 ‘틴스타’라는 프로그램은 그냥 내게 막연히 ‘청소년을 위한 천주교식 성교육’이었다. 가정사목국 신부님의 권고로 명동성당까지 2주 간격으로 두 차례 양일간 ‘225차 틴스타 워크숍 기본과정’을 듣게 되었다. 그때 까지 내게 ‘틴스타’는 출장이었다.

하지만 바쁜 와중에도 출장이 설레었던 것은 틴스타 워크숍을 알려주신 김혜정 베로니카 선생님의 활기찬 전화 통화, 그리고 채주원 히바시오 신부님이 전해주시신 성심여고에서 진행한 틴스타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담과 조언 때문이었다. 앞으로 전주에서 ‘틴스타’ 교육이 자리를 잡는다면 더 많은 하느님의 사랑을 전할 기회가 될 것 같았다.

주님 안에서 시작한 것들은

늘 선물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렇게 시작된 수업에서 만난 분들은 또 주님이 마련해 놓은 인연들 같았다. 어쩔 주님 안에서 시작하는 것들은 늘 선물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지 ‘틴스타’ 수업은 말씀 하나하나 안적을 수 없었다.

나도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성교육을 위한 동화책도 사서 읽고 아이들과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천주교 안에 인격적 성교육에서는 “성적인 자기 몸 에 대한 올바른 앎은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앎으로 이어진다”는 가르침을 통해서 본질적인 문제로 몸을 들여다보게 했다. 도구적인 몸이 아닌 삼위일체 하느님처럼 우리의 유기적인 일치감 또한 살피게 되었다.

나는 나의 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나의 배우자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는가? 사랑하는 사람과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을 ‘선물’로 여기고 있는가? 스스로 많은 질문이 생겼다.

자연주기법으로 큰아이를 임신했던 경험이 큰 축복이었음을

자연주기법을 배우면서는 큰 아이 마르코를 가지려 노력했던 순간이 떠올랐다. 아침마다 내 몸의 온도를 체크하고, 병원에 가서 배란을 확인하고 마르코가 생기던 그날, 아이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과정부터 아이를 갖는 순간, 이미 부모 됨의 마음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되었구나! 깨달았고, 2주 뒤 임신을 확인하기 전까지 금욕의 시간 또한 우리에게겐 간절한 기도의 시간이 되었다. 그렇게 확인한 테스트기의 두 줄은 정말 기쁨으로 아이를 확인했던 순간이었고, 우리 부부는 마르코가 우리에게 온 것을 온전히 기뻐할 수 있었다.

**우리 삶의 어려움은
결국 감사하는 일이 된다**

이번에 틴스타를 배우면서 나의 이 경험이 얼마나 행복한 경험이었는지 감사했다. 쉽게 아이가 생기지 않는 기간이 내게 많은 불안을 줬었지만, 덕분에 이런 경험도 할 수 있었다.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은 결국 감사하는 일이 된다. 그래서 고통 속에 있거나 불안으로 괴로울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의 의미처럼 “아버지 여기서 뭘 얻으시려는 거예요?” 묵상하게 된다.

가치 전달이 부족한 오늘날의 문화

이번 강의를 들으며, 중학교 1학년이 된 마르코가 초등 고학년 때 본당에서 ‘틴스타’를 접했다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었다. 울산의 어느 성당에서 초등 5, 6학년 대상으로 틴스타를 했고, 아이들의 후기를 영상으로 접하니 정말 부러웠다. 틴스타를 초등학생 때 접한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때 어떤 가치를 앞에 두고 세상을 살지 생각만 해도 두근거린다.

요즘 학교는 ‘성교육 강의’를 가는 선생님들이 남자아이들로부터 여성 혐오적 발언을 듣고, 남자아이들은 자신들을 잠정적 성범죄자 취급한다고 성교육 수업을 듣기 싫다고 하는

분위기이다. 우리가 여성과 남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우리 문화가 어떻게 변했기에 서로 ‘사랑’해야 하는 관계에서 ‘혐오’가 난무할까? 고민이 많다. 그런데 틴스타를 들으면서 깨달았다. 우리가 ‘가치’ 전달이 없었구나!

난 늘 주변 사람들에게 성당 마당에서 놀라고 말한다. 천주교 안에는 우리의 생애주기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그 프로그램들만 적재적소에 받아도 우린 한층 성숙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바로 성숙한 인간 아니겠는가?

**적자생존,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새겨진 하느님의 모상 바로 창조성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 나는 오늘도 나의 몸을 관찰하는 일기를 잘 써야겠다.

우리는 어쩌면 ‘진리’를 다 안다는 오만함에 새로운 것만 찾고, 우리 안에 있는 진리는 놓치고 있는지 모른다. 틴스타는 내게 ‘기본’, ‘진리’와 같은 추상적이지만 객관적인 천주교의 고유성을 일깨워주었다. 우리가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중심을 못 잡을 때마다 기록해야겠다. 적자생존.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225차 워크숍 기본과정

지적장애인들도 인격적 성교육을!

김현정 마리프로이데 수녀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도회,
225차 워크숍 기본과정 이수, 교사양성과정 수료)

지적장애인들의 열악한 성교육 현실

저는 2024년 3월부터 지적장애인들과 기쁘게 생활하는 명휘원에 소임받아 지금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할 때면 유튜브 교육 영상이나 두 시간 정도 성교육 강사의 강의를 듣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몸은 달라요, 서로 보여주면 안돼요, 만지면 “안돼요, 하지 마세요, 싫어요”라고 이야기 해야 해요.’가 전부인 성교육의 현실 앞에서 불현듯 오래전부터 권유받았던 틴스타가 생각이 났습니다. 공동생활 가정 입주자



6명의 소규모 수업은 쉽지 않았고 우리 생활재활 교사들이 직접 수업을 진행하려면 양성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교육. 그런데 이게 머선 일이고? 25시간이나 받아야 하다니?

선생님들만 보내는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추천한 사람이 틴스타를 모른다면 말이 되지 않지라는 책임감으로 함께 교육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몸의 신비 앞에서 현실에 분노하던 나의 감정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남녀의 생식기관과 호르몬의 상호작용을 배우니 하느님이 주신 몸의 신비가 경이로웠고 고유한 여성성과 남성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왜곡되어 있는 저 자신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2018년부터 이주여성 성착취, 데이트 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다양한 성폭력 피해자들과 상담하고 수사기관 동행을 하면서 성폭력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이고 절반 이상이 19세 미만인 청소년이며 성을 자신의 이익과 쾌락을 위해 이용하는 남성들, 여성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결여된 현실에 나도 모르게 저 마음 깊은 곳에 분노라는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음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이틀 교육을 들으면서 창조의 순간부터 여성과 남성으로 분리워지고 하느님을 닮은 내게 창조 능력이 새겨져 있음에, 사랑받고 사랑하는 능력을 가진 진짜 사랑의 성소로 분리워졌음에 깊이 감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성에 대해 숨기지 않는 자연스러운 성교육

어릴 때 이성 친구들이 집에 놀러오면 아버지는 자연스럽게 성교육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유별난 딸 사랑을 주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몸은 이렇게 다르단다’, ‘남자들은 호기심이 많고 이성의 몸을 만지고 싶어 할 수도 있지만 현정이를 정말 좋아하면 아끼고 소중히 지켜줘야 하는 거야’,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이니 혼인 서약 전에 성관계는 절대 안 되는 거야.’

어린 마음에 꽤나 창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아버지는 성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열린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에 대한 건강한 인식과 가치관을 가지도록 해주신 훌륭한 교육자이셨습니다.

부부 사랑과 하늘나라를 위한 동정은 결국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공적으로 약속하고 ‘오직 서로에게만’ 고유하고 특별한 관계를 맺는 부부의 사랑을 살펴보면 하느님 나라를 위해 동정 생활을 하는 저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충실하고 배타적인 사랑과 전적인 자

기 증여의 모습, Wait & See(기다림과 내적 바라봄), 생명을 향해 열려있는 몸임을 말입니다. 부모됨을 배제하려는 삶의 방식은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아님도.

점액관찰기록표를 작성하며 내 몸의 생명력에 기쁨이 넘칩니다

‘점액관찰기록표’를 작성하면서 새롭게 다시 나의 몸에 집중하며 생명을 가질 수 있고 그 생명력을 전하며 사는 삶으로 초대되었다는 사실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또한 저녁기도, 끝기도 후 하느님 나라를 위한 동정생활을 하는 수도자로서 책임있는 영적 부모됨을 살아가고 있는지 성찰하는 시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발달장애가 있는 친구들에게도 만나는 이들에게도 생명의 질서와 생식력 자각을 전하겠습니다

앞으로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만나는 이들에게도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올바르게 살아가며 하느님께 받은 몸 안에 주어진 생명의 질서와 생식력 자각을 통해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도록 도움을 주고 싶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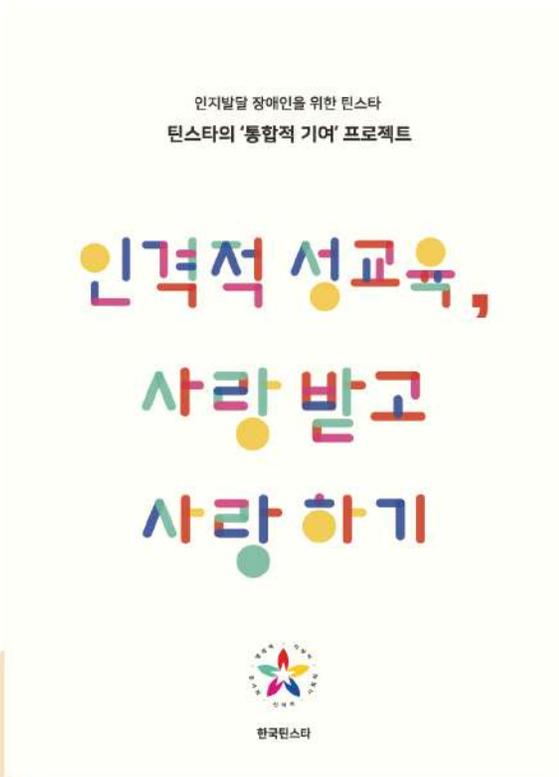
틴스타와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25차 워크숍 기본과정



신청 QR



“인간은
장애가 있든 그렇지 않든 모두
태어날 때부터
남성 혹은 여성으로 태어난
성(性)적인 존재입니다.”

인지발달 장애인을 위한 티스타
티스타의 통합적 기여 프로젝트

펴낸이 손호빈
펴낸곳 한국티스타

본 교재는 이탈리아 티스타에서 인지발달 장애 교사들이 다년간의 티스타 프로그램 수업을 진행한 결과물을 엮은 것입니다. 이탈리아와 한국의 상황은 다른 부분이 있지만, 인지발달 장애인 또한 소중한 고유한 인격적 존재라는 사실은 분명하기 때문에 한국의 인지발달장애 교육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피임과 예방에 초점을 맞춘 기존 인지발달 장애인 대상 성교육과는 달리, 모든 사람이 지니는 아름다움을 바탕으로 장애가 있든 없든 존재 자체로 존엄하다는 인간적 시선이 교재에 담겨있습니다.

* 본 교재는 티스타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사용된 이미지와 자료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국제티스타 소속의 한국티스타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무단 혹은 불법 복제 및 도용을 엄격히 금합니다.

교육후기

우리는 빛나는 ‘별’들입니다.

박성호 사도요한
(225차 워크숍 기본과정 이수, 교사양성과정 수료)

Hi~ TeenSTAR!!

“오빠 오빠 틴스타가 뭐지 알아?”

아내가 다정히 나를 부른다. 평소 아내는 나를 오빠라고 부른다. 아내가 나를 오빠라고 다정히 부르는 일은 드물다. 이유는 딱 두 가지다. 나에게 부탁할 일이 생겼을 때, 아니면 자신의 실수한 부분을 말하거나 해결해야 할 때이다. 오늘따라 오빠라고 부르는 소리가 너무 다정하다. 불안하다.

“틴스타? 처음 듣는데? 아이돌이야?”

“아니. 아이들 성교육을 하는 곳인데…….”

말이 점점 기어들어간다. 불안감이 몰려온다. 그렇다. 아내가 틴스타에 연락하여 11살인 아들의 성교육을 시켜주고 싶었으나 여러 사정으로 직접 와서 교육을 받고 아이를 교육시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아이들 성교육? 오 좋네. 우리 아들도 이제 11살이고, 받아야 할 때가 됐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데?”

“부모가 직접 신청해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주말 토,일 총 4번 받으면 돼.”

“아, 그래? 다녀와. 난 괜찮으니깐”

“근데 선생님이 말하길 남자아이는 남자가 교육시켜 주는 것이 좋대.”

아, 또 올 것이 왔다. 나는 결혼 14년 차, 연애 기간까지 합치면 거의 20년 동안 아내를 봐 왔던 사람이다. 거절해도 의미가 없다는 걸 안다. 결국은 갈 수 밖에 없다. 세상 쿨하고 chill한 사람인 마냥 ‘내가 교육받고 와서 아들 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내가 교육해 줄 수 있으면 내가 봉사하지.’라는 마음으로 상황을 받아들였다.

그날 저녁 아내는 거한 음식을 차려주고 절대 집에서는 허락되지 않았던 술도 마시게 해주었다. 그렇게 나는 2주간의 주말을 맥주 몇 캔과 맞바꾸게 되었고 잠시나마 ‘폭삭 속았수다’의 관식이가 되어 교육에 참가하게 되었다.



그냥 속았쑈다!!

토요일 아침 주차를 하고 명동성당으로 올라가는 그 기분 상쾌하고 holy하다. 이왕 듣는

수업 열심히 들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수업 장소의 문을 열고 주변을 스캔하였다. 이게 웬일인가? 교육받는 남자 선생님들은 나를 제외하고 2명 뿐이었고, 그 2명도 수사님 한 분과 신학생 한 분이였다. 속았다. 머릿속에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남자아이는 남자가……”

나머지 선생님들은 모두 딸만 가진 부모들이란 말인가? 약간의 불만을 안고 중고등학교 이후 처음으로 동성이 아닌 사람들과 같이 성교육을 받게 되었다.

성교육은 _____ 교육이다.

뭐지, 저 밑줄은? 성교육에 또 다른 교육으로 의미가 가능한 말인가? 이것은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단순 피임법, 배란기, 황체기를 배우는 시간은 아니란 걸 점점 알아갈 수 있는 단서가 되는 질문이었다.

성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며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귀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가면서 나는 점점 수업에 빠져들게 되었고 그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은 다소 흥미롭기까지 했다.

내 성은 “PARK”

지금 11살인 우리 아들 레오는 성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교육을 받기 전 아들에게 물어보았다.

“민겸아, 너는 성이 뭔지 알아??”

“성? 알지! 내 성은 ‘박’이지”

그렇다. 내가 박씨이기 때문에 아들의 성은 ‘박’이었던 것이다. 이 순수한 영혼의 성교육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성을 올바르게 알려줄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답을 해 준 곳이 바로 틴스타였다.

나의 몸을 올바르게 알고 더 나아가 올바른 내어줌과 받아들임이 무엇인지 알아 가는 과정.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성에 대한 인식을 배워가는 과정.

모든 내용을 다 받아들인 못했지만 초등학교 아이들이 나에게 성에 대해 물어 왔을 때 그 대답을 이제는 조금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To be Continued

틴스타의 내용을 알아가면서 처음에 손호빈 신부님과 김혜정 선생님이 왜 우리 아내에게 ‘남자아이는 남자가’라는 말을 했는지 알게 되었다.

이건 부끄러움이나 이성의 문제가 아니었고 몸에 대한 인식과 자각의 문제여서 그 몸을 잘 아는 건 이성보다는 동성이 맞는 것이었다. 책임감 있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나의 몸에 대해 자각하도록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들은 아빠가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던 것이다.

“우리는 성에 대해 상담하는 상담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역할은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지식을 바탕으로 돕는 동반자입니다.”

아직 부족한 동반자의 역량을 더 키우기 위해 이제는 아내가 떠민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교사 양성 과정을 신청하게 되었다. 틴스타는 나에게 여전히 ‘To be Continued’이다.



신청 QR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아빠는 너에게 뭔가 다른
놀라운 것을 가르쳐주고 싶구나.”

성장하는 몸이 말하는 이야기

아빠와 함께 준비하는
아들의 사춘기

퍼낸이 손호빈
퍼낸곳 한국틴스타

어린이를 위한 틴스타 3단계
다음 단계에 해당하는
교재입니다.



엄마와 함께 준비하는 딸의 사춘기 <성장하는 몸이 말하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아들의 사춘기를 준비하기 위해 새롭게 제작한 교재입니다.

사춘기를 시작하는 소년들이
자신의 몸과 마음이 변화하는 의미를 깨닫고 좋은 남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40개가 넘는 작은 주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빠와 함께 하는 작업과 혼자 하는 활동,
사춘기를 시작하는 소년들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들이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

* 본 교재의 저작권은 국제틴스타에 소속된 한국틴스타에 있으며,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제(디지털 및 인쇄 포함)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나는 소중한 존재

인천 박문유치원 7살 어린이 52명
생명 존중 성교육 '틴스타' 체험

가톨릭 평화신문 5월 21일자 기사에서 발췌

인천교구 박문유치원(원장 김수연 수녀)의 7살 어린이 52명이 '어린이를 위한 틴스타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을 알고, 하느님에게서 비롯된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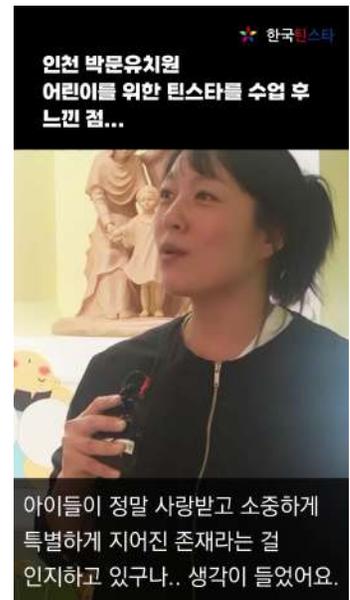
15일 유치원 1층 강당에는 각종 천으로 창세기의 빛·바다·하늘·동식물 등 생명이 시작된 장면을 표현했다. 아이들은 이어 사람이 창조된 순간, 곧 자신이 엄마 뱃속에서 세상에 나올 날을 기다리던 때도 돌아봤다. 각자 준비해 온 태아 초음파 사진을 형형색색의 조각들과 끈, 별 조각으로 꾸미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눈높이에 맞춰 익힌 것이다.



김 수녀가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라고 묻자, 아이들은 한 목소리로 답했다. “보시니 참 좋았다!” 숲속반·사랑반 아이들은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그리면서 존재의 소중함을 스스로 새겼다.



김 수녀는 “미디어에 쉽게 노출되는 요즘 환경에서는 어린이 사이에서도 성과 관련된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곤 한다”며 “어린이를 위한 틴스타 프로그램의 핵심은 존재에 대한 탐구, 나아가 자신뿐 아니라 친구들도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고 서로를 존중할 줄 아는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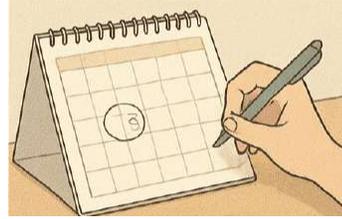


박문유치원 수업
소감 영상 보기

교육후기

내 몸 사랑하기

송송이 로사
(성인을 위한 틴스타 참가자)



저는 35살 미혼여성입니다. 청년으로서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결혼 적령기 여성으로서 결혼과 임신, 출산을 이번 생에 과연 할 수 있을지 막연한 두려움, 성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막연한 기대, 결혼을 하더라도 임신과 출산은 이미 늦은 것은 아닐까 하는 막연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민에 대해 답을 찾을 수 없었는데 때마침 수녀님의 초대로 성인을 위한 틴스타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더 잘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신경쓰지 않았던 제 몸과 생식력을 관찰하고 기록하며, '내가 왜 이러지?'가 아닌 '내 몸이 이런 상황일 땐 이런 감정이 드는구나'하며 저를 알아가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참 신비롭고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35년 동안 신체보다는 감정이나 이성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몸을 챙겨주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몸은 죽음이 아닌 생명을 추구한다는 것, 몸은 영성적인 부분과 따로 떼어낼 수 없다는 것, 몸은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것을 제대로 깨달으니, 몸이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중한 몸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자신을 관찰하며 나를 더 잘 알게 되니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폭도 넓어진 것 같습니다. 또한 제 몸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너무 기쁘고 충만한 기분이 듭니다.

끝으로 저를 초대해 주시고 교육해 주신 수녀님, 항상 따뜻한 말과 미소로 나눔해 주시는 자매님들 덕분에 즐겁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김나경 리나 수녀
(예수성심시녀회,
135차 교사양성워크숍 수료,
223차 워크숍 기본과정 재수강)

지난해 9월, 저는 새로운 소임지인 부산 동래성당에 왔습니다. 이곳의 주일학교 교사, 학부모님들이 틴스타를 알고 있을지 궁금했고, 아이들이 인격적인 성교육을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교사회의 때 혹시 ‘틴스타’를 알고 있는지 물었는데, 선생님들의 표정이 밝아지면서 ‘과거에 소개특강을 계획하였다가 코로나로 무산되어 아쉬웠는데 이번에 해 주시면 너무 좋겠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희망적인 생각과 동시에 불안감도 생겼습니다. 당시에는 교사도 몇 명 되지 않아서 과연 가능할지, 그리고 신부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몇 달 후 부주임 신부님과 틴스타 소개특강을 상의하였는데, 현 시대에 너무나 필요한 교육이라며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고, 감사하게도 주임 신부님께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동래성당에서 워크숍이 열리기까지

정말 오랜만에 김혜정 선생님과 통화하고 소개특강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사제 인사이동으로 새로 오신 부주임 신부님이 틴스타 프로그램을 경험한 적이 있으셔서 올해

중고등부 대상으로 틴스타 프로그램과 워크숍을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소개특강 소식은 본당 주보 뿐만 아니라 지구 내의 여러 본당에도 널리 알렸습니다.

소개 특강에는 본당의 학부모님들과 신자 분들, 그리고 타본당에서도 오셔서 총 5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손호빈 신부님이 몸의 신학을 바탕으로 하는 총체적이고 인격적인 성교육의 필요성과 틴스타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소개 특강 이후에 교리교사가 몇 명 더 영입되고, 학부모님들의 관심도 커짐에 따라 워크숍 기본과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다른 여러 지역에 워크숍이 예정되어 있어 상반기에 날짜를 잡기 어려운 상황였지만, 손호빈 신부님과 김혜정 선생님의 배려로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당시에는 워크숍이 확정되어 기쁜 마음뿐이었으나 막상 워크숍이 시작되고 매주 왕복 약 10시간을 이동하셔야 했던 손호빈 신부님, 김청림 신부님, 베로니카 선생님의 노고를 생각하자, 송구스럽기도 하고, 틴스타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이분들이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모두를 이끄시고 힘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워크숍이 진행될수록 참가자들의 표정들이 달라졌습니다. 이 좋은 교육을 왜 이제야 듣게 되었을까! 더 일찍 들으면 좋았을 것을!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하는 교육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갈수록 참석자들의 분위기도 더욱 친근해졌고, ‘성은 좋은 것이며 선물이고, 생식력 자각이 중요하다’는 것, 자신과 배우자와 자녀를 이해하게 되고, 인생은 성숙해가는 과정’ 등의 감동적인 나눔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본당 주일학교에서 틴스타 프로그램이 잘 정착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그 본당의 교리교사나 학부모님들, 또는 신자분들이 워크숍을 수료하고 틴스타의 가치관을 몸소 익혀서 틴스타 교사로 정식 등록된 뒤, 틴스타 사무국과 연계하여 본당의 아이들 또는 청년, 성인들과 프로그램을 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들과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기에도 좋고, 사제와 수도자가 이동하더라도 교사들이 남아 있기에 틴스타 프로그램이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꾸준히 전해지며 정착되겠지요. 매년 이어지다 보면 틴스타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대학생이 되고 스스로 틴스타 교사가 되겠다고 자청하는 감격스러운 일도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교사 수급과 교사 활동 기간도 문제이고, 본당의 사목자인 신부님과 수도자의 뒷받침과 25시간의 기본과정 워크숍과 7시간의 교사 양성 과정 워크숍을 수료해야하는 인고의 기다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워크숍에 참가하기만 하면 모두들 필요성을 절감하며 떠밀지 않

아도 아이들에게 틴스타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본당으로 이동하여도 이곳의 아이들에게 틴스타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전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당에서 교사들의 워크숍과 학생들의 프로그램이 꾸준히 지속되면 참 좋겠다

저는 울산의 병영성당에서 소임을 할 때 틴스타를 처음 접했는데, 당시 교사들이 거의 다 워크숍을 수료하여 주일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틴스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분위기로 변화, 부모와 자녀 간 소통과 이해를 가져오는 틴스타의 힘을 체험하였습니다. 제가 있던 3년 동안에도 매년 교리교사들과 자모들은 4일 간의 워크숍을 받았고, 틴스타 프로그램이 주일학교 프로그램으로 정착되어 현재까지 약 10년 동안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다른 성당도 이렇게 꾸준히 이어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되었던 223차 부산 동래성당 틴스타 워크숍 기본과정을 마치기까지 물질적, 정신적으로 지원해주신 본당 신부님들, 공동체 수녀님, 열정적으로 수업에 임해준 참가자들, 무엇보다도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기꺼이 달려와주신 손호빈 신부님과 김청림 심부님, 김혜정 베로니카 선생님께 말로 못 다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부산 동래성당 주일학교에 틴스타의 인격적인 성교육이 잘 정착되어 지속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두가 성숙하고 더 좋은 사람이 되기를 희망하며.^^





▲부산 좌동성당 소개특강

▼바오로딸 수녀회 열린 특강



소개특강

- 1.11. 동판교 성당
- 2.1. 바오로딸 수녀회 열린 특강
- 2.16. 부산 동래성당
- 3.8. 서울 하계동성당
- 3.17. 하비에르국제학교
- 4.23. 서울대교구 평신도협의회
- 6.10. 남양주 조안초등학교 학부모회
- 6.28. 부산 웅상성당
- 6.28. 부산 좌동성당

2025 상반기 한국틴스타 수업 현장

분류	지역	현장명	활동교사
학교	서울	방배중학교(소년소녀)	이선영, Fr.권성환, Fr.김청림, 정기철
	인천	인천가톨릭대학교 조형예술대학(성인)	조정옥
	포항	오천중학교(소년소녀)	Fr.이창영, 이윤정, 서성진, 신보경, 신현옥
종교단체	구미	옥계성당(소년소녀)	최예은, 조홍범
	대구	범어성당(소년소녀,남성)	김외택, 김자영, 오세익, Fr.이창영, 조홍범
	서울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여성)	Sr.이진아
	울산	병영성당(여성)	하영애
	인천	영종성당(여성)	김진경
기관	의정부	꽃마리청소년회복지원시설(소년소녀)	조정란

2025 상반기 어린이를 위한 틴스타 수업 현장

분류	지역	현장명	프로그램명	현장교사
종교단체	경주	용강성당	4단계	서성진
	인천	서운동성당	4단계	황윤정, 조정옥
	해외	홍콩한인성당	2,3단계	이안나, 오란희
기관	인천	박문유치원	1단계	이은서, 박주윤, 이세빈, 이승환
	서울	명동영성센터	4단계	송선배



▲명동 영성센터, 어린이를 위한 틴스타

* 어린이 프로그램을 첫 수업현장으로 진행한 교사는 정교사 자격 대상이 아닙니다.

홍보

- 2.5. 가톨릭평화신문, 한국 틴스타, 인지발달 장애인 성교육 교재 발간 보도
- 2.20. 가톨릭평화신문, 한국틴스타 「제 안에 깨끗한 마음을 주소서」 발간 보도
- 5.21. 가톨릭평화신문, 인천 박문유치원 7살 어린이 52명 생명존중 성교육 '틴스타' 체험 보도
- 6.14. CPBC news 성교육 핵심은 '나의 소중함' 알기...어린이를 위한 '틴스타' 현장 보도
- 서울대교구 전 본당에 어린이를 위한 틴스타 개정판 교재 샘플과 홍보 포스터 발송, 게시 요청

- 여성을 위한 틴스타 홍보 영상 제작



- 후원자 모집을 위한 본당 홍보:
 하계동성당(1.18-1.19.)
 일원동성당(3.22-3.23.)
 고속터미널성당(4.5-4.6.)

한국틴스타 워크숍

〈기본과정〉

- 221차 대구대교구 김천평화성당 워크숍(3회)
2025.2.8.-2.22.
- 222차 수원가톨릭대학교 워크숍(10회)
2025.2.14.-3.18.
- 223차 부산동래성당 워크숍(8회)
2025.3.13.-5.8.
- 224차 대구대교구 제1,2,3대리구 워크숍(4회)
2025.3.15.-3.30.
- 225차 서울 워크숍(4회)
2025.4.26.-5.11.
- 228차 살레시오 수녀회 워크숍(4회)
2025.6.5.-6.8.

〈교사양성과정〉

- 2025.3.9. 명동 영성센터
- 2025.6.3. 명동 영성센터
- 229차 수원 동판교성당 워크숍 기본과정(6회)
2024.8.23.-9.27.

발간

- 아با와 함께하는 아들의 사춘기, 〈성장하는 몸이 말하는 이야기〉 발간



인쇄소에서 감리를 보는 손호빈 신부

2025년, 『생명의 복음』 반포 30주년을 맞아 보내는 손호빈 신부님의 메시지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1995년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3.25)에 모든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불가침해성에 대한 예언자적 문서인 『생명의 복음』을 반포하셨습니다. 대축일과 『생명의 복음』 반포의 깊은 연관성은 모든 인간 생명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에 대한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강조합니다. [...] 예수님의 강생은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생명이 지니고 있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생명의 복음』, 2항)를 계시해 줍니다. [...] 그래서 생명의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사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며, 하느님께서 이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QR을 스캔하여 전문을 확인하세요 >



한국틴스타 후원 안내

한국틴스타와 함께해 주세요. 후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후원하기를 작성하시거나 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우리은행 1005-804-490599

예금주: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더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性)을 하느님께서 주신 고귀한 선물로 받아들이고 총명한 생명력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한국틴스타와 함께해 주세요.

한국틴스타 출간 예정 도서

성 요한 바오로 2세의 가르침과 현대의 신학적 성찰을 바탕으로 사랑을 꿈꾸는 이들을 위한 따뜻하고 실천적인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젊은이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 1) 정서적 문맹의 시대 안에서 사랑의 언어를 깨닫기
- 2) 인간 사랑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
- 3) 성사, 선물 그리고 약속
- 4) 자신의 사랑 이야기의 화자(話者)가 되기
- 5) 진정한 사랑의 덕인 정결
- 6) 선물의 논리와 출산의 책임성
- 7) 참된 사랑에 대한 갈망을 다시 일깨우고 동반하기

창세기의 창조질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혼인의 신비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안에서
인간 섹슈얼리티의 참된 의미를
깊이 있게 풀어냅니다.

인간 섹슈얼리티의 참된 의미

- 1) 사랑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
- 2)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 3) 창조주 하느님의 첫 강복
- 4) 그리스도의 몸: 진리와 사랑의 궁극적인 결합
- 5) 혼인의 불가해소성: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살아가기
- 6) 동성애 성향이 있는 사람에 대한 사목적 돌봄을 위한 지침
- 7) 혼인과 동성결혼에 관한 질문과 대답

미리 신청하시면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10% 할인, 무료 배송, 우선 발송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여 지금 신청하세요!

▶ 들어가는 글

사랑하는 요한씨에게..... (최건희 마리테레사)

▶ 교육후기

틴스타와 함께하시는 하느님..... (김형일 사도요한)

결혼 10주년 특별한 기념일..... (김현주 율리아)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가?!'..... (최은정 야가다)

하느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과 참된 행복..... (박찬승 베드로)

선물처럼 다가온 틴스타..... (김재기 베드로)

인격적 성교육 사랑받고 사랑하기..... (박선화 비비안나)

점액관찰기록표! 적자생존..... (박선 마리아)

지적장애인들도 인격적 성교육을!..... (Sr. 김현정
마리프로이데)

우리는 빛나는 '별'들입니다..... (박성호 사도요한)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나는 소중해..... (박문유치원)

내 몸 사랑하기..... (송송이 로사)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Sr. 김나경 리나)

대전 살레시오 수녀회 워크숍 스케치

▶ 한국틴스타 지음



발행일 2025년 7월 (통권 62호)

창간호 2004년 10월

발행인 손호빈

발행처 한국틴스타

홈페이지 <https://teenstar.or.kr>

주소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 74
영성센터 사무동 401호

E-MAIL kteenstar@hanmail.net

전화 02)727-2357~9 / 02)755-2629

팩스 02)727-2243